

한국학술진흥재단 후원
시민인문강좌

현대사에 노정된 분노와 그 화해

1. 아프리카 이야기
2. 함석헌과 장일순의 이야기

2008년 11월 1일

최종덕(상지대학교, 철학)

르완다, 수단의 대학살 사태의 역사적 배후

- 투치족과 후투족의 반목과 갈등의 역사적 원인
- 서구 제국주의의 상흔들
- 벨기에, 프랑스의 입장

수단, 다르푸르의 불행

- 기독교, 아랍계 이슬람, 원주민 이슬람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원인
- 그아랑 부통령의 이력
- 서구 제국주의의 상흔들
- 영국, 제국주의의 제왕

그루지아 사태의 본질

- 남오세티아는 원래 그루지아가 아닌 독립자치구였으며 인구의 70-80%가 러시아계 인종이어서 당연히 친러시아적이다. 2002년 구 그루지아 정권을 무너트린 소위 장미혁명이 기억난다. 당시 텔레비전에도 멋있게 비춰졌다. 구 집권지를 무너트리기 위해 국민 모두가 장미 한 송이씩을 들고 손에 손잡고 무혈혁명으로 구정권을 붕괴시켰다. 서방세계는 이러한 혁명을 장미혁명이라고 했다. 멋있었다. 그런데 그런 장미혁명은 미국으로 지향하는 첫단계였다. 새로이 대통령이 된 사카슈빌리는 제일 먼저 그루지아 영토를 정착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래서 주변의 4개 지역을 그루지아로 편입시켰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문제가 된 남오세티아 독립자치구였다. 그러나 이후 남오세티아는 항상 재독립을 염원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그루지아 정부는 결국 남오세티아를 무력으로 침공하게 되었다. 그 날자가 바로 8월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직전이었다.



짐바브웨의 금광

- 짐바브웨는 1980년 영국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영국은 짐바브웨를 독립시켰으나 많은 땅과 금광을 계속 소유하였고 금윙을 장악하였다. 해방을 맞은 무가베 Robert Mugabe 초기 정권은 이에 맞서 완전 해방을 요구했다. 영국은 그 댓가로 백인 소유 땅을 정권 권력자에게 넘기면서 해방 이후 국가 재산 소유를 공공화 하는데 소홀하면서 국가 소유 땅들을 무가베 측근들이 나눠 갖도록 영국은 방조하고 협조하였다. 그러면서 무가베 정권의 정통성이 손상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짐바브웨를 능동적으로 독립시켜 짐바브웨 근대화에 일조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약속된 시점에 독립을 한 것이고 더 실제로는 1980년이라는 너무 늦은 독립인데도 영국은 해방을 시혜를 베풀었다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

그 많은 나이지리아의 석유는 어디로 가길래 그들은 그렇게 가난할까

- Shell 사 주도 탐사 니제르델타 지역
- 서방세계만 배불려주는 석유채광
- 석유채굴에 참여한 기업들, 쉘Shell, 토탈Total사, 아집Agip사
- 주민들의 불만 , 가난의 심화 : 니제르델타해방운동
MEND: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the Niger Delta 을 결성
- 서방기업에 대한 경고성 공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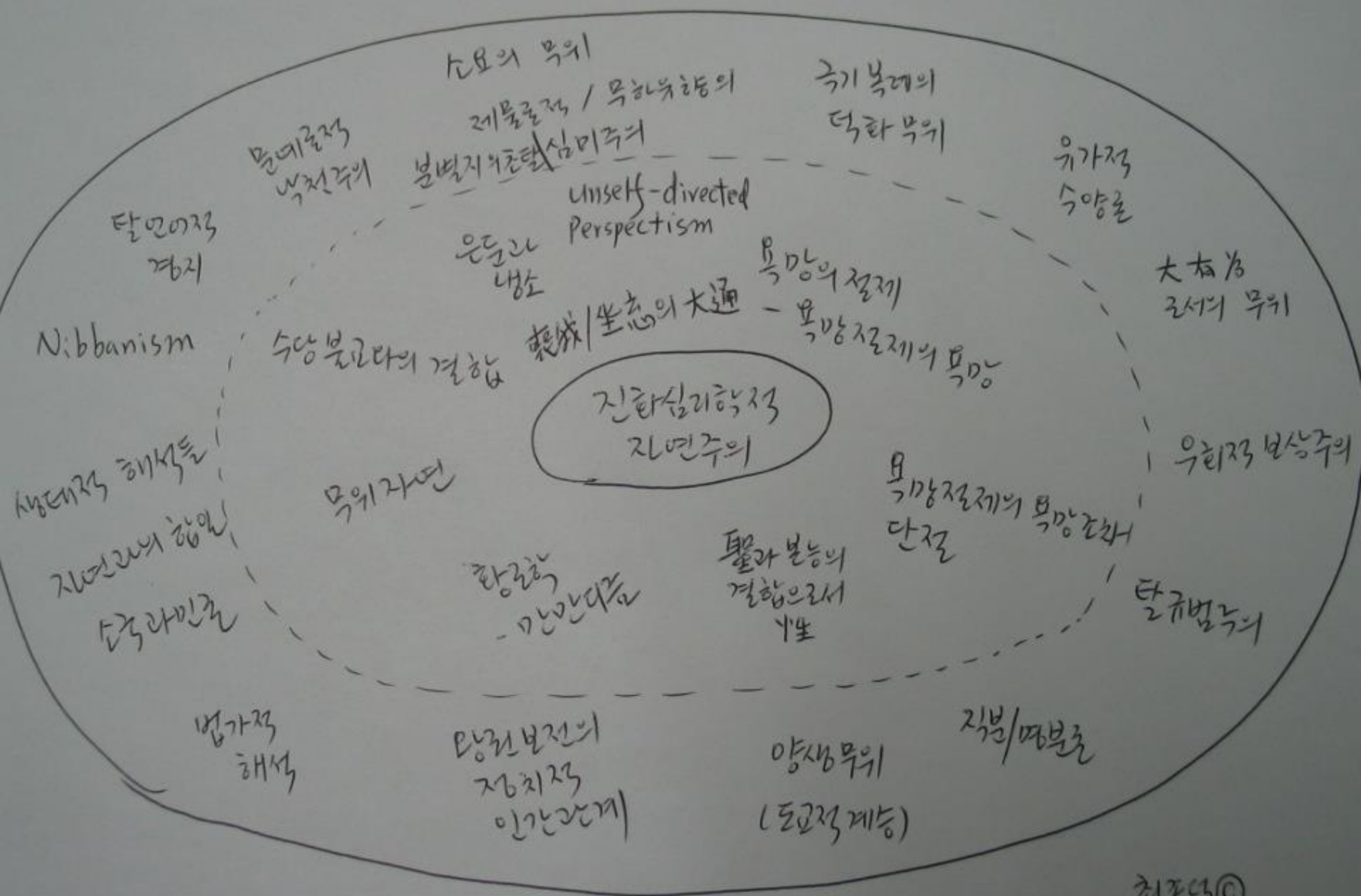
잠비아

- 식민지 지배의 소산물로 남은 아프리카 국경은 백인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국경선
- 예를 들어 보츠와나와 잠비아는 거의 붙어 있는 나라이지만 서쪽 국가인 남미비아 국경선을 짐바브웨와 연결하려는 제국주의 국가의 과거 이해관계로 인해 괴이한 방식으로 국경선 사이로 남미비아 땅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퀴즈

- 파키스탄 전 부토 대통령 1986
- 그루지아 사카슈빌리 현 대통령 2007
- 한국 전 이승만 대통령
- 이라크 알라위 총리 및 알 야와르 전 대통령 2004
- 수단 남부 전 그아랑 부통령 2006
- 의 공통점은?
-

<무위를 보는 다종적 스펙트럼>



시민인문강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11월1일

앞으로 무위당 장일순 선생
을 기리는 무위당 만인계
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
합니다.